

광주시 외국인 투자 1분기 1달러도 유치 못했다

4년 연속 투자금액 줄어 전국 꼴찌...5년새 3분의1 토막
기술력·연구인력 부족에 꺼려...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시급

외국인 투자자들이 광주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4년 연속 투자금액이 줄어들면서 전국 꼴지가 됐다. 올해 1분기에는 단 1달러도 유치하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신고금액은 200만 달러, 도착금액은 '0'다.

올 1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 금액이 단 1달러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 외국인 투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900만달러(10건)였던 광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1200만달러(19건), 2016년 1000만달러로 감소하더니 2017년 800만달러, 지난해 600만달러로 1000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5년 사이

에 3분의 1 토막난 것이다.

신고 실적은 더 가관이다. 2014년 2억 7500만달러였던 투자 실적이 2015년 5200만달러로 -528%로 급감했다. 2016년에도 또 줄어 1100만달러(-472%), 2017년 800만달러로, 지난해 900만달러로 1000만달러를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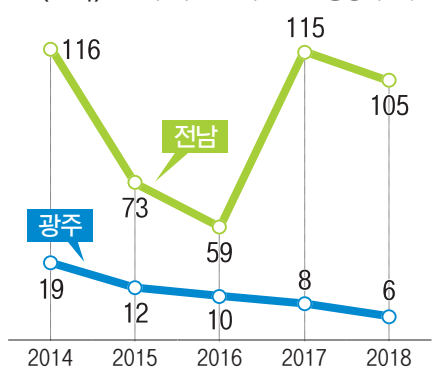
수치로만 본다면 5년 사이에 -3055% 감소했다.

이는 광주시보다 도시 규모가 작은 세종시보다 투자유치 실적이 낮다.

세종시는 도착금액이 2016년 400만달러, 2017년 500만달러로 광주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1400만달러를 유치해 광주를 2배 이상 앞질렀다.

지역 경제계는 노사관계 불확실성과 기술력·연구인력 부족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 광주·전남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도착) <단위:백만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꺼리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광주시 내부에서는 전략 부재와 소극적 대응을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는 기아차·금호타이어를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강성노조 이미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외국인투자가 살아나고 있다.

2016년 도착금액이 5900만달러(23건)였던 유치 실적이 2017년 1억1500만달러, 지난해 1억500만달러로 1억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8100만달러(40건), 2억400만달러(29건), 1억3500만달러(34건)를 기록했다.

독일 바스프가 877억 원을 투자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공장을 완공하는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글로벌 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착금액) 2138억4600만달러 중 52.5%

(1122억1000만달러)가 서울에 집중됐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은 581억6700만달러로 27.2%에 그쳤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248.63 (+5.75)	금리 (국고채 3년)	1.76 (0.00)
코스닥	765.02 (-1.73)	환율 (USD)	1135.70 (+2.60)

김재철 동원 회장 ‘아름다운 퇴진’

강진 출신 그룹 창업주
창립 50돌 맞아 전격 결단



로 전해졌다.

동원그룹관계자는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경영을

강진 출신으로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16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연수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서 여러분의 활약상을 믿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룹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랫동안 거취를 고민하다 퇴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 세대로 소임을 다했고, 후배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물려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하는 기존 경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 체제 관련해서는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1935년 강진에서 태어나 강진농고와 부산수산대(현 부경대)를 졸업했다. 23세에 한국 최초 원양어선 지남호의 실습 항해사로 참치잡이를 시작했고, 1969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동원산업을 설립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참치캔을 생산하면서 국내 최대 수산업체로 성장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보해복분자주 세계 최고 와인 됐다

美 몬터레이 와인대회 금상
‘Best Fruit Wine’ 수상도



‘보해복분자주’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와인대회에서 금상과 베스트 과실주 부문을 수상했다. APEC 정상회담과 OECD 세계포럼 등에서 만찬주로 사용되며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보해복분자주가 국제 와인대회에서 수상하며 No. 1 제품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올해 26번째로 열린 2019 몬터레이 국제 와인대회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와인 대회 중 하나로 전 세계 730개 와인 제품이 출품해 경쟁을 벌였다. 이 중 보해복분자주는 금상 중 최고점 받았으

며,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파클링와인 등 분야별 최고 와인을 선정하는 평가에서는 ‘Best Fruit Wine’도 수상하였다.

지난 2009년 미국 샌디에이고 국제 와인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보해복분자주는 2014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과실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뛰어난 맛과 품질 덕분에 지난해 평창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대표단 회담시에 만찬주로 사용되며 ‘No. 1 보해복분자주’라는 명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출시된 보해복분자주는 현재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20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No. 1 코리아 와인’으로 불리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승은 파트장은 “보해복분자주가 금상을 수상한 몬터레이 국제 와인대회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심사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류업체들에게 인정받는 권위 있는 대회”라며 “보해는 앞으로도 지역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들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해양에너지 신입사원 6명 입사식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15일 사내 대회의실에서 신입사원 6명에 대한 입사식을 개최했다.

금번 신입사원은 6개월간의 인턴기간을 통해 선발된 인재로 호남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인 해양도시가스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에너지”로 사명을 바꾸고 처음 맞이하는 신입사원이다.

신입사원은 지난해 10월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6개월간 다양한 인턴십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입사식 후 실무부서에 배치돼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해양에너지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김형순 대표이사는 축하와 격려의 당부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비전에 맞추어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현재 고졸·전문대졸 대상으로 인턴사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대졸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협력기업 임직원 e-러닝 교육 사이트 오픈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료 e-러닝 교육 사이트인 ‘KEPCO Partner’s e-아카데미’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협력기업 임직원에게 한전 인재개발원 등에서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까지 확대하게 됐다.

‘KEPCO Partner’s e-아카데미’에서는 재무·회계 등 경영일반과정부터 디지털 변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동향과 해외마케팅 과정까지 다양한 콘텐츠

를 제공한다.

또한 주제별 세분화된 10분 내외의 동영상 콘텐츠를 PC와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볼 수 있다.

한전 홈페이지 상단 메뉴 ‘기업센터-수출지원포털’을 통하거나 해당 인터넷 주소(http://kepcopartners.hunet.co.kr)를 직접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한전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협력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고 동반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FC 시즌권 구매 저소득 청소년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4일 광주FC 2019시즌권 200매(1,000만원 상당)를 구매해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기탁기탁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상인 광주은행 부행장과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기영옥 광주FC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FC 2019시즌권 구매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광주FC가 개막 이후 무패행진을 달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광주FC의 승리를 지원하는 응원 붐업을 조성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건

강한 여가활동을 선도함으로써 광주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서상인 부행장은 “지금의 광주은행이 있기까지 지역민과 지역 기업으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지역 체육 진흥 및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창사67주년

2019. 4.18목 - 5.28 화

2019. 4.18목 - 5.28 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 청 미술·작문 부문 2019. 5. 13(월) - 5. 15(수)

참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8일(목)~5월 28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10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9년 4월 15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 상

우수학교상

개인 및 단체 :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 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